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잠정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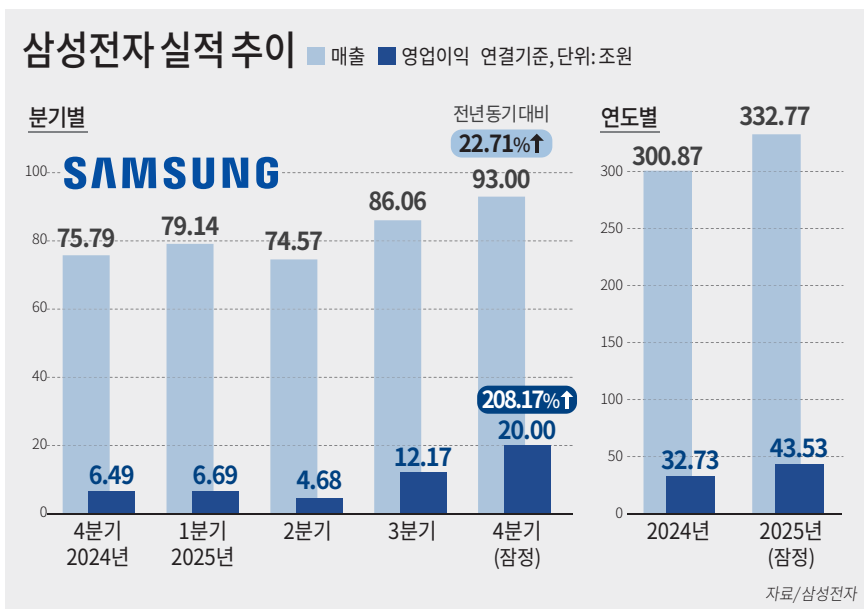
D램·HBM 등 반도체 사업 질주… 1분기 실적 신기록 기대

글로벌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
증권가 연간 영업이익 123조 추정
“기술개선 노력이 결실 보고 있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챗GPT 등장에 따른 인공지능(AI) 열풍이 불어오면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덕분에 2024년 하반기부터 범용 D램 가격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사업에 유례없는 ‘초강세장’이 열리며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범용



D램 가격은 지난해 4분기(38~43%)를 넘어선 50~60%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까지 대

세로 자리잡을 HBM3E(5세대)는 브로드컴, AMD,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HBM4는 2분기부터 엔비디아 루빈(Rubin)형 공급이 예상된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도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미국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AMD의 2나노(nm) 칩 수주도 목전에 두고 있다. 또 퀄컴의 수주 복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도 D램 흥행으로 또다시 최대 실적을 갈아 치울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도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4 효과로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의 HBM4는 첨단 노드인 10나노급 6세대(1c) 공정과 파운드리 4나

노 기반 로직 공정을 도입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속도와 발열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KB증권은 지난 7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2026년 삼성전자의 분기 평균 영업이익을 31조원, 연간 영업이익은 123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5년 분기 평균 영업이익 11조 원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하반기에는 분기 평균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단기성과에 급급했던 내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술 개선에 노력한 것이 결실을 보고 있다”며 “2026년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도 지금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파운드리 ‘2나노 공정’ 승부수… 신규수주 속도낸다

글로벌 기업, 파운드리 이원화 흐름
기회요인 작용… 흑자전환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파운드리 이원화 전략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에서 분기 매출 90조원을 넘긴 가운데,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 역시 적자 폭을 줄이며 수익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기업인 미국 퀄컴이 차세대 AP생산을 두고 파운드리 기업 중 삼성전자와 최신 2n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2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 첨단 복합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인 NRD-K 클린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을 활용한 위탁생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최종 성사될 경우 삼성은 지

난 2022년 이후 끊긴 퀄컴의 최첨단 제품 생산을 5년 만에 재개하게 된다. 퀄컴은 지난 2021년까지 삼성 파운드리에 최첨단 AP생산을 맡겼으나 이후 대만 TSMC로 거래처를 옮긴 바 있다. 업계에서는 퀄컴이 이번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다시 생산을 맡기려는 배경으로, 지난해 7월 삼성이 테슬라로부터 165억달러(약 24조원)에 이르는 차세대 인공지능 칩 ‘AI6’ 생산을 수주하며 기술 신뢰도를 높인 점을 꼽고 있다.

또한 AMD의 2nm 칩 수주를 앞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최근 AMD가 차세대 GPU 로드맵을 공개한 가운데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유지하며 생산처를 다

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특히 2nm 공정에서는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게이트웨이라운드(GAA) 구조를 앞세워 조기 양산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방문 중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해당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오는 2월 공개될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2600’도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최근 2나노 수율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내부 고객인 엑시노스 2600 물량에 더해 북미 고객을 중심으로 파운드리 추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에 그동안 대규모 투자 부담과 낮은 가동률로 적자가 이어져 ‘아픈 손가락’으로 꼽혀온 파운드리 사업이 올해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는 모습이다. 메모리 중심의 실적 회복에 비메모리 개선이 더해질 경우 반도체 사업 전반의 체질 개선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2나노 공정 고객이 추가될 경우, 이를 계기로 빅테크 고객사 저변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최선단 공정에서의 기술 신뢰도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韓 소비 회복에 완만한 성장세… 건설·제조업 부진은 부담

KDI ‘1월 경제동향’

서비스업·금융·보험 등 생산 증가

소비 회복에 힘입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으나,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소매판매액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 “소비자심리지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비제조업 기업의 심리지수도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건설업·제조업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

산은 여전히 미약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1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하며 전월(-3.7%)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조업일수 감소 폭이 2일에서 1일로 축소된 가운데 서비스업의 개선 흐름이 이어진 영향이다.

계절조정 기준 전월 대비로는 0.9% 증가했지만 전월의 감소(-2.7%)를 일부 만회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생산 증가세는 여전히 완만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생산(3.0%)이 도소매(4.2%), 금융·보험(4.2%), 보건·사회복지(6.2%) 등 대다수 부문에서 회복세를 나타내며 전산업생산 증가세를 견인했다.

건설업생산은 17.0%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했다. 광공업생산도 1.4% 감소했는데, 반도체(-1.5%)와 자동차(-0.2%)가 조정 국면에 들어선 데다 화학제

품(-5.0%)과 1차금속(-6.8%)의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는 39.2%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이는 수출물량 증가(4.9%)보다 수출가격 상승(32.7%)의 기여도가 훨씬 컸다. 물량 기준인 반도체 생산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소비는 2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마무리되면서 정책 효과는 다소 약화됐지만,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효과가 직접 작용하던 식료품·소모품 등 준내구재(1.0%→-1.5%)와 의류·생활잡화 등 비내구재(1.9%→0.2%)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승용차(-9.3%→-5.4%) 등 내구재(-3.8%→-4.1%)를 중심으로 소매판매액(0.4%→0.8%)은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자금 흐름 온도차… 가계 ‘저축’·기업 ‘투자’

한은 2025년 3분기 자금순환

2025년 3분기 가계의 순자금운용(여윗돈)이 58조원으로 전분기보다 7조원 늘어난 반면, 비금융법인은 설비투자 등 투자 확대 영향으로 19조5000억원 순자금조달로 돌아서며 자금수요가 커졌다. 국내부문 전체 순자금운용은 46조3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일반정부는 5조9000억원 순운용으로 전환했다. 순자금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3분기 국내부문의 자금운용·조달 차액(순자금운용)은 46조3000억원으로 전분기(41조5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이 58조원으로 2분기(51조3000억원) 대비 늘었다. 자금운용(금융자산 거래)은 78조80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됐

는데, 금융기관 예치금 중심으로 증가한 결과다. 반면 자금조달(금융부채 거래)은 20조7000억원으로 줄었고, 금융기관 차입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비금융법인은 순자금조달이 -3조5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한은은 설비투자 등 투자 확대에 따라 자금조달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실제 조달 측면에서는 채권발행 등 직접금융이 축소됐지만, 금융기관 차입금 증가폭이 확대되고 상거래신용부채가 증가 전환하면서 자금조달 규모가 3분기 100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정부는 3분기 순자금운용 5조9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순자금조달(-2조7000억원)에서 순운용으로 전환했다. 자료는 지출 규모를 상회하는 수입 등을 전환 배경으로 제시했다.

국외부문은 3분기 순자금조달 규모가 -46조3000억원으로 전분기(-41조5000억원)보다 확대됐다. /김주형 기자 gh471@